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이동훈 “유로파마 조인트 벤처 설립… 플랫폼 사업 박차”

(SK바이오팜 사장)



환자·의료진·병원 점점 확대
글로벌 CNS 시장 역량 강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속도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SK바이오팜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 지속가능한 '제2의 세노바메이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중추신경계(CNS) 질환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의 보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서 남미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유로파마와 미국 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은 SK바이오

팜이 북미 현지에서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 조인트 벤처는 최소 3년간의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본사는 미국에 세워지며 현지 경영진 채용, 현지 맞춤형 경영 계획 등이 수립된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뇌파 분석 인공지능 기술과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낸다. SK바이오팜의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제로'는 뇌전증 발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속하고 의료진이 과학적 데

이터를 근거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팜과 유로파마의 조인트 벤처는 환자, 의료진, 병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 환경과 환자 접점 플랫폼이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SK바이오팜은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세노바메이트뿐 아니라 후속 약물 파이프라인 구축, 신경계, 만성 질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허블 플러스' 등도 개발해 왔다. 허블 플러스는 SK바이오팜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인 방사성약물(RPT)과 표적단백질분해(TPD) 분야에서 연구 효율성을 높여주는 혁신 기술이다.

양사는 세노바메이트 경쟁력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혁신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유로파마를 통해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에 판매되고, SK바이오팜은 품목허가 및 상업화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 로열티 등 추가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현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직접판매로 매출 성과를 거두며 기업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엑스코프리는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으로, 지난 2024년 2분기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자체에 의해 발달 저하가 초래되는 질환인 레눅스-가스트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 조현병 신약 후보물질 'SKL 20540', 조울증 신약 후보물질 치료제 'SKL-PSY' 등에도 역량을 쏟는다.

/이청하 기자 nlee236@metroseoul.co.kr

서진석 “CT-P70 등 13개 후보물질 IND 추진”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



ADC 등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 공개
“매년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 추진”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시장에서 혁신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서의 도약을 알렸다.

셀트리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 행사의 핵심 무대인 메인 트랙에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셀트리온그룹의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는 “셀트리온은 그동안 축적해 온 항체 의약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 항체 신약’을 향후 셀트리온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우선 지난해 월드ADC에서 최초 공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CT-P70’, 방광암 치료제 ‘CT-P71’ 등을 바이오베터 ADC 신약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치료제에는 셀트리온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발굴한 ADC 전문 기업 피노바이오의 ADC 플랫폼인 ‘PBX-7016’이 활용됐다.

셀트리온은 빠른 시일 내 임상 시험에 돌입해 같은 기전의 치료제 중 가장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을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PBX-7016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낮은 독성을 나타내고 높은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이중 표적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중특이적 ADC’, 합성 약물 페이로드를 조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듀얼 페이로드 ADC’, 다중 항체 신약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현재 셀트리온은 정상 조직세포와 암세포 간 차이가 확실한 세포독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양 표적의 독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중 항체 항암신약 ‘CT-P72’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 셀트리온은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암 표적 항체를 활성화시키는 ‘조건부 활성화 다중특이 항체’, 다양한 면역 세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면역항암 다중특이 항체’ 등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세분화한다.

특히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는 신약 후보물질의 연도별 임상시험 계획(IND)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 ADC 분야에서 9개, 다중항체 분야에서 4개 등 총 13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순차적으로 제출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ADC 신약 CT-P70, CT-P71, CT-P73과 다중항체 신약 CT-P72에 대한 임상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에는 ADC 신약 2건, 다중항체 신약 2건, 2027년 ADC 신약 3건, 2028년 ADC 신약 1건, 다중항체 신약 1건 등의 임상을 진행한다.

서 대표는 “차세대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지 2년 만인 올해 4개 신약 후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의 메인 트랙에서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

보물질이 임상에 진입하는데 매년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는 이어질 것”이라며 “선두 후보물질은 비임상부터 남다른 개발 속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 셀트리온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는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BIO 부문 주요 사업장 LCA 완료

글로벌 고객사 니즈 선제 대응

CJ제일제당이 BIO사업부문 주요 사업장에서 전과정 평가(LCA)를 완료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ESG)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5개 국(미국·브라질·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 7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41종 제품에 대한 LCA 산정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제3자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식품, 그린 바이오 업계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LCA 검증 받은 첫 사례다.

LCA는 원료 조달부터 제품 제조·운송·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투입되는 물

질과 에너지,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정량화해 환경 영향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번 제3자 타당성 평가는 글로벌 에너지·환경 전문 인증 기관인 DNV가 맡았다. DNV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으로 각 제품별 ‘출고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주요 환경영향 지표 값을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검증 받은 제품은 차별화된 천연 발효공법으로 생산하는 차세대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TnR)뿐 아니라 라이신, 트립토판, 알지닌 등 사료용 아미노산 등이다. 특히, 사료용 아미노산의 경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LCA 산정 기

드를 준수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이번 LCA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사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사료 배합비와 탄소발자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BIOFEED’를 활용해 기술 마케팅 역량을 한 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윤석환 CJ제일제당 BIO사업부장은 “친환경 공법으로 아미노산을



CJ바이오아메리카 포트닷지 사업장 전경. /CJ제일제당

양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그린 바이오 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된 LCA 체계를 기반으로 저탄소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배출량 감축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박카스 공급 가격 인상

동아제약은 오는 3월 1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와 일반 대리점에 유통하는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카스D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1년 11월 1일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인상 폭은 공급가격 기준 10.9% 인상된다. 박카스F도 2021년 12월 1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공급가격 기준 11.1% 인상된다. 이번 가격인상은 일반 대리점에 유통하는 박카스F에 한한다.

동아제약은 원부자재와 제조경비 등 제반경비의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번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